

한옥은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나?

Hanok's Response to modern Society and Change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개항과 전통건축의 사회적 위상

1876년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양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의 제도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와 건축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근대적 제도와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만한 새로운 건축물이 뒤따라지 못했다. 중앙에서는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양의 건축을 도입하였지만, 지방의 경우 전통건축의 틀 속에서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통건축의 사회적 입지는 중앙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지방에서는 차선책으로 전통건축이 선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지역에서 근대적 기능을 수용한 전통건축의 공간적·구조적 변이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1897년 서구를 모델로한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의 출범은 경운궁의 첫 정전의 건축양식으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선택하였으나, 동시에 전통적인 건축적 질서의 상징인 중화전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는 대한제국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전통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통건축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의 변화

서양건축이 이 땅의 건축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던 것은 건축 자체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시기에 서양건축이 이 땅에 도입되면서, 건축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스템을 바꿔 놓은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안정을 유지해왔던 전통건축 생산체제는 19세기 이후 임금제가 확산되고, 경복궁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이후 건축장인들의 도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복궁 건축이후 고급기술을 가진 장인조직이 민간에 참여하면서 건축술의 향상과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건축에서 일어난 변화는 건축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건축기술자들은 여전히 도제방식에 의한 사설교육체제에 의해 길러졌고, 건축재료는 자연이 공급해주는 재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된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와 대량소비 체제는 건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산업이전과 이후의 건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건축 수요의 증가는 건축재료의 빠른 생산과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연에만 의지하던 건축재료는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건축을 생산해내는 기능공과 기술자들 역시 제도화된 교육시스템 내에서 대량으로 길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의 변화된 시스템이 개항이후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개항과 함께 이 땅에 이식된 서구식 건축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전통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통건축 생산을 담당하는 장인의 양성이 제도권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를 책임질 건축은 더 이상 전통건축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정책입안자/집행자들에게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제도권 건축교육에서 전통건축기술자의 양성시스템이 배제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관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었고, 이전의 장인들의 삶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과거의 생산시스템의 관성으로 전통건축의 생

산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 후속세대의 단절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전통건축기술자의 급격한 소멸과 기술의 단절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통건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항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이 필요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새로운 건축의 생산은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에게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대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빠르게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 구법의 변화와 생산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미세하지만 건축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택에서는 주문 생산시스템에서 생산 후 판매시스템으로 변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통건축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뒤 쫓을 뿐이었다. 그 결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진적인 전통건축 생산시스템의 붕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항이후 새로운 서구적 사회시스템을 위한 건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주도의 새로운 사회시스템은 대부분 서양의 건축을 통해 수용되었지만, 서양건축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에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시주택의 등장이었지만, 주택 뿐 아니라 학교와 교회 그리고 상업시설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건축의 용도 전환에서부터 양식적 변화, 더 나아가 구조적인 변화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용

개항이후 이 땅에 들어온 서구문물의 경우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많았지만, 이들 서양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서양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와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통건축 기술자와 전통건축의 활용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전통건축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전통건축기술자들이 서양건축을 눈썰미 좋게 전통건축에 덧붙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통건축의 용도변경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전통건축의 용도변경이다. 그중에서도 보통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용도가 사라진 전통사회의 건축물이 학교건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학교건축은 제도적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시설에서 뚜렷하게 시차가 존재했다. 중앙의 교육시설이 서양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반면 지역의 학교건축은 전통적인 지역 건축생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교육시설에서 여느 근대적 시설보다 광범위하게 전통건축의

전용이 이루어졌다.

교육기능을 전통건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로 전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을 가진 한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준 것이 향교와 객사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건축이었다. 이 중에서 갑오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도가 폐기된 객사가 보통교육 시설로 많이 전용되었다. 갑오개혁으로 실시된 '소학교령(1895)'에 따라 서울에는 관립소학교, 지방에는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서울의 소학교가 구제도하의 교육기관인 사학(四學) 또는 관청 등이 이용되었던데 반해, 지방에서는 각 지방의 향교와 객사 및 재(齋) 등이 활용되었다. 1902년 9월에 설립된 사립 안성소학교가 1906년에 공립안성보통학교로 개편된 후, 1908년에 안성객사를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한 것이 그 한 예다.

전통건축 중 각도의 감영은 도청으로 사용되었고, 다양한 관청의 시설이 '군수비대' 등으로 전용되었다.



그림 1.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



그림 2. 여수공립보통학교로 전용된 진남관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경우 1895년부터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여러 관립외국어 학교를 1906년에 하나로 통합하였는데, 이때 전통건축을 활용하였다.(그림 1)의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는 전통주택의 변용을 통해 서양식 교육기관이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의 1911년 군사시설로 대공간을 가지고 있던 진남관에 여수공립보통학교(현 여수서초등학교)와 여수공립심상소학교(현 여수동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대한제국 멸망으로 용도가 사라진 군사시설을 총독부가 학교시설로 전용한 것이다. 사진에서 진남관의 구조체를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칸막이를 하여 교사로 상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건축구법과 재료의 활용

근대기에 발생한 전통건축의 변용 중에서 가장 광범한 것은 서양식 건축구법과 재료의 수용이다. 전통건축의 지붕구조는 처마 끝이 길게 내미는 캔틸레버구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붕의 하중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구법인 탓에 전통건축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전통건축의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의 지붕은 (그림 3) 전화국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크기와 하중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붕구조의 속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의 내부공간은 깊이를 갖기 어려운 홑집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개항이후 서양의 양식건축과 함께 도입된 목조트러스구법은 지붕의 경량화를 가능케 했고, 함께 보급된 붉은 벽돌은 밀도가 높은 도심지 건축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우리가 공급되어 공공건축에서 우리가 전통건축의 창조지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미달이창호를 대신하여 여단이 창호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림 3. 전화국

(그림 3)의 전화국은 디자인은 전통건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건축재료와 세부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서양건축을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구조와 지붕의 모습은 전통건축을 따르고 있지만, 벽체는 벽돌로 시공되었고, 출입구에는 벽돌로 만든 아치가 있고, 창호는 여단에 우리가 사용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건물의 높이다. 건물의 전면에서 서양인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서양인의 키를 감안할 때 전화국의 처마 밑 높이는 일반적인 전통건축의 높이를 훨씬 초과한다. 이는 이 전화국이 단순히 기존의 전통건축을 고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화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양 문물 도입 초창기에는 한옥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양의 제도와 기능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통건축의 틀은 유지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서양의 건축구법과 재료 및 의장적 요소들이 적극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통건축공간의 변화

한국의 전통건축은 장방형의 가로로 긴 평면구조를 근간으로 하며, 도리방향으로 확장이 용이한 지붕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내부공간의 길이방향 확장에는 유리했지만 길이에 대한 직각방향으로의 확장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강화도 성공회성당에서 보여지듯 길이 방향의 장방형 평면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건축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한 측면도 있었다. 동시에 공간구조의 중층화를 통해 공간의 수직방향 확장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건축은 완

벽하게 중앙의 신도석과 양측에 복도를 갖는 바실리카식교회의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전통적인 우리건축의 진입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의 건축은 장변의 지붕면이 정면을 형성하는데, 성공회 성당은 측면의 합각부분을 주출입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기독교건축에서 로마의 포럼에 장변이 면했던 바실리카를 단면으로 출입구로 삼으면서 바실리카식 교회가 탄생한 것과 비견된다. 강화성당은 주출입구를 합각부로 바꾸고, 4칸으로 구성된 단변중 2칸을 회중석으로 삼고 양편의 각 1칸을 복도로 삼아 바실리카식 성당의 공간구조를 구현했다. 여기에 회중석과 복도의 높이차이를 이용하여 고측창을 설치한 방법도 초기기독교의 바실리카식교회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측창을 만드는 방법은 전통건축의 중층지붕을 구성하는 방법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건축구법에서 공간의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기능을 교리에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건축공간구조의 변화 중에서 주목할 것은 현관의 등장이다. 현관은 전통건축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덧붙여진 공간인데, 전통건축은 서양건축과 달리 채의 각 실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공간과 진출입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전통건축에 현관이 부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적 윤곽은 전통건축의 모습을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과 밖의 관계는 현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현관이 건축물의 내외부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관의 사용은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의 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청의 내부화와 각 실들을 복도로



그림 4. 강화성당 전경



그림 5. 강화성당 내부



그림 6. 가회동 한씨 가옥, 1920년대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창호로 막아 대청과 뒷마루의 내부공간화와 함께 각 실들 사이의 기능적 연계성이 확보되었다.

(그림 6) 가회동 한씨 가옥의 경우 행랑채를 겸한 대문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의 건물 군으로 형성되었는데, 행랑마당에서 기단을 오르면 안채에 설치된 돌출된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옥의 근대기능 수용과 변용: 교육시설

제도적 근대화에 따른 근대시설의 사회적 수요는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을 가져왔지만, 신건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황에서 사회적 수요를 담당한 것은 전통건축이었다. 한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구열강과 일본이 각축전을 벌이고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등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도 조선시대 전래의 공공건축이 대대적으로 일본군사시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용도가 폐지되었던 사랑진객사의 경우 일본해군이 수리하여 사용했다는 기록(독립신문 1897.6.29)이 있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강서군지(1936)'에 따르면 갑오경장으로 객사가 폐지되자 건물이 훼손되고 그 자리에 보통학교와 전매국판매소가 입지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

한옥 학교건축의 탄생

학교건축은 제도적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설의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다. 특히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신건축이 대부분 중앙중심으로 그 수요가 발생하여 비교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건축은 여느 근대적 시설보다 빠르게 기존 시설의 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 한옥이 어떻게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존의 한옥이 학교시설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한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준 것이 '객사'건축이었다. 객사의 용도전환은 갑오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객사의 용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한 보통교육의 보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초등교육시설

2005년 여상진의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연구에는 대표적인 공공건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객사가 근대에 어떻게 전용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건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잘 밝혀져 있다. 객사의 용도전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학교시설로의 전용이었다. 갑오개혁에서 부국강병과 독립수

호를 위해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소학교령(1895)'에 따라 초등교육기관 설립이 이어졌다. 소학교는 서울에는 관립소학교, 지방에는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서울의 소학교가 민가나 구제도하의 교육기관인 사학(四學) 또는 관청 등이 이용되었던데 반해, 지방에서는 각 지방의 齋, 鄉校, 客舍 등이 활용되었다.

제도적으로 한옥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한 첫 시작인 셈이다. 예를 들어 1902년 9월에 설립된 사립안성소학교의 경우 1906년에 공립안성보통학교로 개편되었는데, 1908년에 안성객사를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갑오개혁이후 소학교로의 전용

총독부 문서 '各道所在客舍取調ノ件'에 따르면, 강원도의 30개 군, 전라북도 20개 군, 함경북도 10개 군, 충청남도 21개 군에서 조사된 객사가 정리되어 있는데, 여상진이 조사 정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보통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는 1906년 8월 통감부에서 '보통학교령'이 발령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상진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일합방 전에 전용이 이루어진 객사는 다대포 객사를 비롯한 31개소이고, 한일합방이후에 전용이 이루어진 객사는 39개에 이른다.

객사의 교육시설로의 전용을 장려함은 고종실록에도 나타난다. 고종실록 44년 3월 29일(양력), 관보 광무11년(1907)4월 1일자에 따르면

'오늘날 급선무는 교육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학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사에 관심을 두었다. 관립과 공립의 학제는 대체적으로 구비되었으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조건에서는 늘 궁색한 것이 걱정인데 무엇보다 넓고 큰 건물들을 잡자기 도처에 짓기가 곤란하다. 여러 군들에 있는 객사 건물에는 켄폐를 둔 것 외에 아직 큰 칸들이 많으며 사신들이나 손님이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전부 내버려두어 무너지고 있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모두 잘 수리하여 교사로 만들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데 대하여 공문을 만들어 각 해당 도의 관찰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로 언급되어 확대하는 보통교육의 시설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객사의 전용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왕조 개창이래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배례의 장소가 되었던 객사제도는 1907년 11월 폐지되었다.

'객사'건축의 변용 - 학교건축

객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학교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구조적 공간적 변용이 불가피하다. 객사의 사용은 우선 어느 건물을 교사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1)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908년 4월 비안현 객사 병산관에 설립된 병산학교(현 비안초등학교)에서는 객사의 정전을 제외한 '동대청과 서대청'내에 4개의 교실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전라도 금산객사도 1907년 3월 사립금산학교로 전용되었는데 이 때 서대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안성객사의 경우 1908년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객사를 수리할 때 일본인 훈도 통정이 궤패를 봉안한 객사 정전까지 범하려 하자 안성군수는 '동편과 서편의 두 대청만 교사로 수리하고 궤패 정전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학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객사의 학교 교사 전용은 정전을 제외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개천공립보통학교



그림 8. 통영보통학교(세병관)

세부적으로 교사로 전용된 건물에서 일어난 변용을 살펴보면, 주출입구의 설치와 창호의 변화 그리고 벽체재료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중등교육시설

중등교육시설 역시 초기에 한옥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중등교육시설의 경우 초등교육시설과는 한옥 사용에서 다른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초등교육시설이 보통교육의 실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 하에 관시설이 적극 이용되었지만, 중고등교육시설의 경우 관공립학교 이외에도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공립학교의 경우 지방보다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도 중등교육시설이 초등교육시설의 한옥전용과 다른 경향을 갖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시설은 대부분 신축되어 한옥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고, 사학의 경우 한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산학교의 경우 한옥교사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관립학교: 한성외국어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를 살펴보면, 매입한 기존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건물간의 연결과 교사로 전용된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공간의 변용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한옥을 교육시설로 전용하였지만, 전래의 건축에서 근대

적인 기능을 수용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 전통건축의 변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옥의 근대적 변용: 배치도에 따르면 중심에 관리부서가 배치되고, 해당 어학군별로 교실이 기능별로 조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향교나 서원 등에서도 기능별 조닝은 있었지만, 한성외국어학교의 조닝이 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단일 목적이 아닌 다종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교육과 지원기능에 따른 기능 배분 이외에도 교육종류별 조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닝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의 모델이 구축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특이할만한 점은 일여부교사와 화장실이 기능적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1 참조)

사립학교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이후 양정, 보성, 휘문, 중동, 오산, 대성 등의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들 민간사학에게는 뚜렷하게 정립된 학제나 교과과정이 없었다. 게다가, 근대적인 학제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의 모델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학교들의 시작은 대부분 한옥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한옥교사는 정동에 설립된 이화학당이 최초이지만, 본격적인 중등학교의 한옥교사는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화학당 :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 북감리교회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 Scranton)에 의해 정동에 설립되었다. 1883년에 미국의 공사관이 정동에 자리 잡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여성을 위한 학교를 건설하였는데, 이 때 지은 교사가 최초의 한옥학교건축이다.



그림 9. 최초의 한옥교사, 정동

1885년 7월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스크랜턴 여사는 1886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886년 11월에 한옥교사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때 완성된 한옥교사는 동향으로 지어졌으며, 높은 축대 위에 7개의 방을 가진 큰 기와집으로, 규모는 전면 88피트(약 27×24m) 규모에 전평 200평에 달했다고



그림 10. 한옥교사 자리에 신축된 메인홀

2) 강선혜 외, 정동 이화학당 한옥교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10호, 2005년 10월

한다. 중앙에 중정을 지닌 '口'자형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²⁾

근정전의 규모가 630㎡라는 점은 감안하면, 약 660㎡에 달하는 한옥교사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한옥교사는 증가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1897년에 철거하고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의 메인홀이 같은 자리에 건축되었다.

이화학당이 한옥으로 건축된 것은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배재학당 교사(1886년 8월~1886년 12월)가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과 비교된다. 백낙준의 기록(改新敎宣敎史)에 따르면 '1887년에는 67명이 재적하였고, 이해에 한국인을 위하여 현금된 돈으로 지은 르네상스식 당사(堂舍)를 감독 와렌(H.W. Warren)의 주례로 헌당식을 가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림 11. 2006년 이화여대에 복원된 한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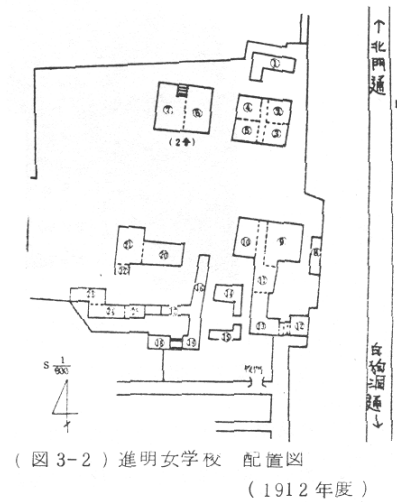
같은 시기에 같은 선교사 그룹에 의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학교였던 배재학당의 교사가 서양건축양식으로 지어지고,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교사가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문제로 이화학당이 한옥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다.



그림 12. 배재학당 신축공사 모습

진명여학교 : 엄비로부터 하사받은 청선궁터에 추가로 한성부 북서 순화방 창성동의 길씨 소유민가를 추가 매입하여 1906년 4월에 개교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초기 진명여학교는 전통한옥을 교사로 사용하였지만, 곧이어 조적조 교사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908년 10월 연 90평의 벽돌조 2층 교사가 준공되었다. 1912년의 진명여학교의 배치도에 따르면, 기존 한옥건물에 조적교사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圖 3-2) 進明女學校 配置圖 (1912年度)

그림 13. 진명여학교 배치도

진명여학교의 배

치를 살펴보면, 앞서 설립된 관립 한성외국어학교의 배치와 매우 유사하지만,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옥에서의 근대교육 실시는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의 변용을 가져왔다. 진명여학교의 배치도에 따르면, 전체 외관에는 변화가 없지만, 벽체와 창호 부분에서 부



그림 14. 구교사(1908)

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용은 주로 디테일에서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개교1주년 기념사진에서 보이는 교사의 입면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호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접이식 창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명여학교의 기본 배치는 기존 한옥의 배치를 따르고 있으나, 1908년에 신축된 벽돌조 2층 교사를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양옥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명여교 75년사에서 보이는 1909년의 교사가 1908년에 신축된 조적조 교사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지붕의 처리인데, 지붕이 곡선은 사라졌지만, 전형적인 한옥 팔작지붕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기숙사



그림 16. 개교1주년기념



그림 17. 양잠수업

송실학당 : 1901년 9월에 완공된 송실학당 교사는 2층 한옥으로 지어졌다. 교사가 한옥으로 지어진 것은 'Nevius Method'의 '교회 건물은 그 지방 교인들이 스스로 짓도록 하되 그 지방에 알맞도록 하라'라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송실학당 교사는 벽체는 조적구조이지만, 지붕은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한양절충형 교사의 첫 사례로 판단된다. 이 교사의 1층에는 교무실과 교실 5개(16×16ft)가 위치하고, 2층에는 강당(16×40ft)이 있었다.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유형을 갖지 못했던 조선에서, 전통건축의 변용을 통해 일단 근대교육을 수용하는 모습을 여러 학교에서 보였는데, 이 중에서 송실학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대교육을 전통건축을 통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의 최초의 학당과 1911년의 교사는 전통건축의 다층화를 통해 근대적 기능이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8. 최초학당(도서관)



그림 19. 송실학당(1911)



그림 20. 사랑방학당



그림 21. 송실학당 과학관(1935)

오산학교(정주군 갈산면, 1926) : 오산학교는 학교출범과 함께 오래 동안 한옥교사를 사용한 사학이었다. 특히, 아래 오산학교 한옥교사 전경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한옥의 학교건축 전환이 아닌, 본격적인 한옥교사의 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전경은 물론이고, 개별교사에 있어서도, 한옥이 근대적인 학교시설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현관이 덧붙여지고, 2-3칸이 하나의 유닛으로 사용하는 교실군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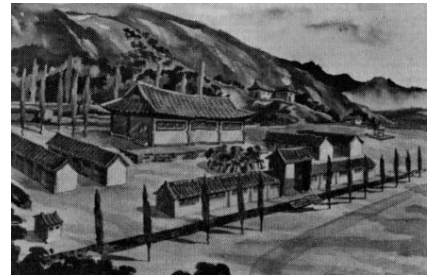


그림 22. 오산학교 한옥교사 전경



그림 23. 오산학교 한옥교사

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교사가 한옥의 전용이 아닌 신축 당시부터 학교용도를 전제로 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이전 한옥학교등과는 달리 창호에 양식건축에 사용되었던 오르내리창이 설치된 것 등도 양식건축의 세부가 한옥교사에서 소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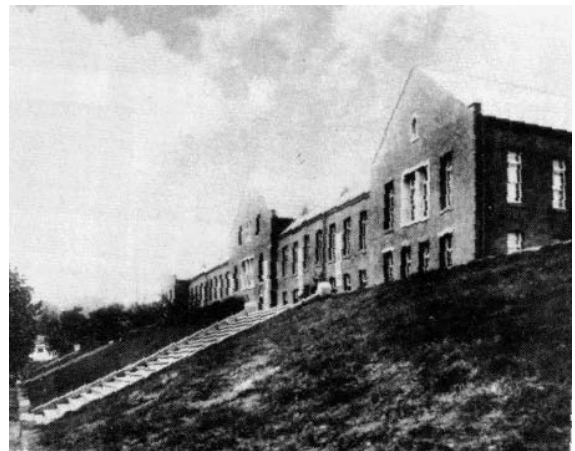


그림 24. 오산학교 본관

오산학교는 초기에 한옥교사로 출범하였으나, 본관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오산학교출신으로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 후 총독부에 근무하던 건축사 박동진의 설계로 조적조 교사가 지어졌다. (그림 18)을 살펴보면 비록 건축재료는 벽돌이었지만, 건축외관에 있어서 중앙부와 양날개부분의 처리나 창호의 처리는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는 이미 중앙부를 강조하고 교사의 양쪽 끝을 박공면으로 처리하는 형식이 교사건축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㉔